

荀子哲學의 理想社會

柳 熙 星*

1.

인간은 사회를 떠나 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여겨온 것은 儒家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노동력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고립적인 생활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재해나 금수의 공격 등 자연에 대처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생활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자는 “금수와 더불어 함께 무리지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의 무리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라고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 이러한 유가의 일반적인 생각을 계승한 순자도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긍정하여 “인간의 삶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²⁾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반드시 사회생활을 도모해야 하는가? 사회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공동의 필요에 근거하여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면, 이러한 공동체적 삶이 꼭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증해줄 수 있는 것인가?

*서강대 철학과 강사

1) 「論語」 「微子」:禽獸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2) 「荀子」 「王制」:人生不能無群.

어떻게 하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의 안녕 질서를 이룰 수 있는가? 나아가 어떻게 하면 사회공동체적 삶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고대철학자들, 특히 순자철학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목표이다.³⁾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순자가 당시의 혼란한 시대상황에 직면해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어떠한 것인가? 둘째, 순자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생활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욕구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욕망의 존재라는 양면성을 갖는데, 어떻게 사회공동체를 구성해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가? 셋째, 순자는 정치·사회·도덕질서의 원리인 '禮'에 의해서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회공동체의 원리인 '禮'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넷째, '禮'에 의한 사회정치질서는 사회정의를 담보할 수 있는가?

2.

순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공동체는 무엇인가? 순자는 다음과 같이 두 곳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사회(至平)를 묘사하고 있다.

3) 순자철학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대철학(선진철학)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회혼란을 막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 철학의 주요목적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인 ‘사회정치질서의 확립’에 있다.

대개 귀한 것으로는 천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한 것으로는 천하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감정상 모두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을 좇으면, 형세가 담아질 수 없고 사물이 넉넉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은 그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그것을 나누어 귀천의 등급과 장유의 차이·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유능한 자와 유능치 못한 자의 구분이 있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맡아 저마다 자신의 마땅함을 얻게 하였다. 그런 뒤에 곡록(봉급)을 많게 하거나 적게 하고, 두텁게 하거나 얇게 하여 평형을 이루게 하였다. 이것이 무리지어 화목하고 한결같이 사는 도리이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 농부는 힘써 밭일을 다 밭취하고, 상인은 좋고 나쁜 재물을 자세히 살핍으로써 재물을 다 팔며, 각양각색의 기술자들은 교묘한 재주으로써 기계를 잘 만들며, 사대부에서 공후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두터운 마음과 지혜·능력으로써 관직의 직분을 다 하지 않는 자가 없다. 대체로 이것을 지극히 평화롭다고 일컫는다. 따라서 어떤 자는 천하를 봉급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많다고 여기지 않으며, 어떤 자는 문지기나 감시인·관문의 문지기·야경꾼 노릇을 해도 스스로 적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들쭉날쭉한 듯하나 가지런하고, 굽은 듯하나 곧고, 같지 않은 듯하나 한결같다고 말하는 것을 인륜이라고 한다.⁴⁾

4) 「荀子」 「榮辱」: 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 然則從人之欲, 則執不能容, 物不能贍也. 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

윗사람(군주)이 예의를 좋아하고 어진 이를 존중하며 유능한 사람을 기용하여 조금이라도 이익을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아랫사람(신하)들도 역시 사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실과 신의를 다하여 신하된 도리를 다하려 노력한다. 이렇다면 아무리 무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절을 맞춘다든가 계약서를 나누어 갖는 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서로 신의를 다하게 되고, 일을 결정하는데 제비뽑는 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공평하게 되고, 저울질을 기다리지 않아도 고르게 되며, 말과 평미레의 사용을 기다리지 않아도 가지런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모두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같이 복종하며, 관리들은 별 고생하지 않아도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정치적 법령이 번거롭지 않아도 풍속이 아름답워진다. 온 백성은 감히 상부의 법을 따르고 상부의 뜻을 본받아 상부에서 내려진 일을 부지런히 힘쓰며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비용을 잊고, 일을 하는데도 수고스러움을 잊으며, 외적이 쳐들어오면 목숨을 바쳐 싸우며, 성곽은 손뼉을 기다리지 않아도 단단하고, 창칼 등의 병기는 날을 세우는 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날카롭고, 적국은 정복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물러나며, 온 천

之，使有貴賤之等，長幼之差，知愚能不能之分，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宜，然後使鰥寡多少厚薄之稱，是夫群居和一之道也。故仁人在上，則農以力盡田，賈以察盡財，百工以巧盡械器。士大夫以上至於公侯，莫不以仁厚知能盡官職，夫是之爲至平。故或祿天下而不自以爲多，或監門御旅，抱關擊柝，而不自以爲寡。故曰，斬而齊，枉而順，不同而一，夫是之謂人倫。

하의 백성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한결같이 뭉친다. 대체로 이것을 지극히 평화롭다고 일컫는다.⁵⁾

위와 같이 순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인 지평(至平)의 사회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가? 순자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분업하여 재화를 생산해야만 비로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온갖 재주가 이룬 것은 한 사람을 기르는 까닭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재주를 겸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많은 관직을 겸할 수 없으며, 홀로 떨어져 살며 서로 의지하지 못하면 궁핍하게 된다.”⁶⁾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는 여러 사람들이 분업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이것은 한 개인이 현실적으로 모두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를 떠나서 홀로 고립된 생활

5) 「荀子」 「君道」: 上好禮義, 尙賢使能, 無貪利之心, 則下亦將慕辭讓, 致忠信, 而謹於臣子矣. 如是, 則雖在小民, 不待符合節別契券而信, 不待探籌投鈞而公, 不待衡石稱縣而平, 不待斗斛敦概而嘖. 故賞不用而民勸, 罰不用而民服, 有司不勞而事治, 政令不煩而俗美, 百姓莫敢不順上之法, 象上之志, 而勸上之事, 而安樂之矣. 故藉斂忘費, 事業忘勞, 寇難忘死, 城郭不待飾而固, 兵刃不待陵而勁. 敵國不待服而誦, 四海之民不待令而一, 夫是之謂至平.

6) 「荀子」 「富國」: 百技所成, 所以養一人也, 而能不能兼技, 人不能兼官, 離居不相待則窮.

을 하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조직하여 생활해야만 한다. 둘째, 각양각색의 만물이 존재하는 우주에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존재이다. 인간의 생명은 거센 바람이나 홍수·벼락·맹수의 공격 등 자연현상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기타 존재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뛰어난 지혜란 사회공동체를 조직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만물을 제압하여 이용할 줄 아는 것이다. 순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과 불에는 기운이 있으나 생명이 없고, 초목에는 생명은 있으나 지각능력이 없고, 금수에겐 지각능력이 있으나 의로움(가치판단능력)이 없으며, 인간에겐 기운, 생명, 지각능력이 있으며, 게다가 의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이다. 힘에는 소만 못하고 달리는 데는 말만 못하지만, 소와 말이 (인간에게)이용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은 무리(사회생활)지을 수 있으나, 저들(소와 말)은 무리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⁷⁾ 순자는 이와 같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의 근거를 욕망충족과 생명의 보존, 그리고 자연계에 대한 지배와 이용에서 찾는다. 그러나 순자는 인간욕망의 성향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이 없는 것으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7) 「荀子」 「王制」: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亦且有義, 故爲天下貴也. 力不若牛, 走不若馬, 而牛馬爲用, 何也. 曰: 人能群, 彼不能群也.

인간의 정(情)은 먹는 데는 맛나는 음식이 있기를 바라
고, 입는 데는 아로새긴 비단 옷이 있기를 바라며, 가
는 데는 가마와 말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남는 재물로
부를 축적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결국은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이 인간의 정이다.⁸⁾

대개 인간의 정은 눈은 가장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귀
는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바라며, 입은 가장 맛나는
음식을 바라며, 코는 가장 향기로운 것을 바라며, 마음
은 가장 편한 것을 바란다. 이 다섯 가지 최상의 것은
인간의 정이 반드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욕망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성향으로
억지로 없애거나 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욕
망추구나 생명의 보존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역기능이 발생하여 혼란을 야기하여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순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간의 삶은 무리(사회생활)짓지 않을 수 없다. 무리짓되 구
분함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다투면 혼란해지며, 혼란해지면
궁핍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함이 없는 것은 인간의 커
다란 해악이다.”¹⁰⁾ 순자는 사회혼란의 원인이 바로 공동체를

8) 「荀子」 「榮辱」: 人之情, 食欲有芻豢, 衣欲有文繡, 行欲有輿馬,
又欲夫餘財蓄積之富也, 然而窮年累世不知足, 是人之情也.

9) 「荀子」 「王霸」: 夫人之情, 目欲綦色, 耳欲綦聲, 口欲綦味, 鼻欲
綦臭, 心欲綦佚. 此五綦者, 人情之所必不免也.

10) 「荀子」 「富國」: 人之生不能無群, 群而無分則爭, 爭則亂, 亂則
窮矣. 故無分者, 人之大害也.

구성하되 구분함이 없는 것(群而無分)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순자는 바로 구분(分)이라고 말한다.¹¹⁾ 따라서 구분함이 없는 공동체생활은 재앙과 혼란을 야기하므로 사회질서의 확립은 바로 구분함이 없는 공동체생활에서 구분함이 있는 공동체생활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자의 생각은 공자 맹자의 차별있는 질서관을 계승한 것으로 이후 유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되었다. 다시말해, 유가가 표방하는 질서관은 차등(分)있는 화합인 '和'의 질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同'의 질서관을 내세우는 묵자와 다른 것이다. 묵자는 각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한 채 전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질서관이 투영된 것이 바로 그의 '兼愛說' 이나 '尙同說'이다. 반면에 유가의 질서관은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개별성)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전체성을, 즉 개별성을 포섭한 전체성을 주장한다. 순자의 이상사회인 '至平'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질서관의 실현이다. 이러한 까닭에 순자는 『書經』의 말을 인용하여 “오로지 가지런한 것은 진정으로 가지런한 것이 아니다”(維齊非齊)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지적능력이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동일성만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분이 균등하면 신분상 구별이 되지 않고, 권세가 가지런하면 단결되지 않으며, 일반민중의 신분이 가지런하면 부려지지 않는다...대개 둘 다 귀하면 서

11) 『荀子』 「王制」: 人何以能群? 曰: 分.

로 섬길 수 없고, 둘 다 천하면 서로 부릴 수 없다.…
 권세와 지위가 가지런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동
 일해 사물이 감당할 수 없으면 반드시 다투게 되고, 다
 투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궁핍해질 것이다.¹²⁾

순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차등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둘 다 귀하면 서로 섬길 수 없고, 둘 다 천하면 서로 부릴 수 없다”는 명제를 도출하여 추상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만약 어떠한 차등도 없는 평등사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群而無分), “힘이 센 자는 약한 자를 해쳐서 빼앗고, 다수는 소수를 포악하게 다루어 분열되니, 천하가 어그러지고 혼란해져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잠시라도 기다리지 않는다”¹³⁾ 사회정치적 질서가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순자는 이상적인 사회란 차등있는 사회이고, 정치의 목표는 이러한 차등사회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몫을 구분(分)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荀子」 「王制」: 分均則不偏, 執齊則不壹, 衆齊則不使……夫兩貴之不能相事兩賤之不能相使, ……執位齊而欲惡同, 物不能澹, 則必爭. 爭則必亂, 亂則窮矣.

13) 「荀子」 「性惡」: 夫彊者害弱而奪之, 衆者暴寡而誹之, 天下之悖亂而相亡不待頃也.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회적 지위나 몫의 한계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가? 의로움(義)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로움에 의거해 구분하면, (사회구성원들은) 조화롭게 된다. 조화로우면 하나로 단결되고 하나로 단결되면 많은 힘을 발휘하고, 많은 힘을 발휘하면 강해지며, 강해지면 만물을 제압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궁실을 얻어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서 농사짓고 만물을 마름질해 이용하며 천하사람을 끌고루 이롭게 하는 것은 거기에 다른 까닭이 없는 것이다. 구분한 것이 의롭기 때문이다.¹⁴⁾

여기서 순자는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義'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義' 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인용한 문장의 문맥적인 의미로 보아 '義'는 도덕의식이나 마땅함·공평함·정당함을 함축하고 있는 합리적인 가치판단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⁵⁾ 따라서 '義'인 가치판단능력에 근거해 사회구성원들의 몫을 나눈다면, 사회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조화롭게 되고 나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문의 의미가 매우 잘 통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

14) 「荀子」 「王制」: 人何以能羣. 曰, 分. 分何以能行. 曰, 義. 故義以分則和, 和則一, 一則多力, 多力則彊, 彊則勝物, 故宮室可得而居也. 故序四時, 裁萬物, 兼利天下, 無它故焉, 得之分義也.

15) 이 '義'자의 해석에 대해 John Knoblock은 "a sense of morality and justice"라고 풀었으며(XunZi, vol II, p.104), 李滌生은 "人類有理性, 能思考, 能推理, 故對於事物能作合理的裁斷, 這就是義."라고 풀었다.(「荀子集釋」, 181쪽)

면 구분(分)한 것이 사회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느냐의 여부는 바로 공평성이나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분의 근거는 공평성 혹은 정당성(義)이다. 그러므로 순자의 이상사회 실현의 성공여부는 '義'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알 수 있다.

인간이 인간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 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인간이 인간 된 까닭은 그에게 두 다리가 있고 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금수예젠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는 있으나 아버지와 자식간의 친애함은 없으며, 암컷 수컷의 관계는 있으나 남녀간의 구별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리는 가리지 않음이 없고 가리는 것은 구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구분하는 것은 예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예는 성왕보다 더 큰 것이 없다.¹⁶⁾

가리는 능력(辨)은 지각적인 인식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관계나 남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인간적 적합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자연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辨' 자는 이미 도덕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16) 「荀子」 「非相」: 人之所以爲人者, 何已也? 曰, 以其有辨也……故人之所以爲人者, 非特以其二足而無毛也, 以其有辨也. 夫禽獸有父子而無父子之親, 有牝牡而無男女之別. 故人道莫不有辨. 辨莫大於分, 分莫大於禮, 禮莫大於聖王.

포함하고 있는 가치분별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대제는 인간이 다른 존재자와 구별되는 인간됨의 본질적 특성을 가치분별능력(辨)·가치판단능력(義)·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能群)에서 찾는다.¹⁷⁾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순자는 '性惡'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辨'과 '義' 그리고 '能群'의 능력을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한다면, 순자철학은 그 일관성에 있어서 손상을 입거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맹자철학의 경우에 '性善說'은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순자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性惡說'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연적인 의미의 天(자연)과 本性(性)은 순자의 기본관점일 뿐 중심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중심적인 주장은 '制天用天'(자연을 마름질하고 이용한다), '化性起僞'(본성을 교화하여 가치를 창조한다), 나아가 '明分使群'(사회구성원의 지위나 몫을 구분하여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한다)이다.¹⁸⁾ 따라서 순자

17) 陳大齊, 「荀子學說」,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1971년, 5쪽.

18) 순자철학의 기본전략은 먼저 분리(分)하고 그 다음에 종합·통일(合)하는 방향으로 철학체계를 세우고 있다. 순자는 세계를 자연·인간 그리고 사회라는 커다란 범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연론에 있어선, 자연과 인간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天人之分)임을 강조하고 나서 자연세계를 이용해야 한다(制天用天)는 주장을 하며; 인간론에 있어선, 선천적인 본성과 후천적인 인위활동의 다름(性僞之分)을 강조하고 나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해 인위적인 가치활동을 창출해야 한다(化性起僞)는 주장을 하며; 사회론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지위나 몫 등을 구분하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맹자와 달리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그 철학체계에 부합된다. 즉, 인간의 본질은 ‘辨’, ‘義’, ‘能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것인가 아닌가? 만약, 타고난 것이라면 순자철학에 있어서도 인간의 본질은 선천적으로 착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순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끊임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勸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 배움은 끝이 없는 것으로 죽어서야 멈추는 것이다. 누구나 부단하게 노력하여 배움을 쌓고(積學), 좋은 습관을 익히면(積習) 맑은 물과 같은 지혜가 생겨 행위에 과실이 없게 된다.¹⁹⁾ 이런 맥락에서 가치 분별능력이나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능력도 후천적으로 배워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보고 “이러이러하게 행위하는 것은 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저러저

여(明分), 결국은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해야 한다(使群)는 주장을 한다. 여기서 天人之分과 性僞之分은 制天用天과 化性起僞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적인 전략이고, 이것은 결국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순자는 자신의 주장을 천인지분에서 제천용천으로, 성위지분에서 화성기위로, 명분에서 사군으로 전개하는데, 이것은 ‘分’에서 ‘합’(順天, 性僞之合, 使群)으로의 귀결이고, 群居和一의 조화롭고 질서있는 사회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순자철학에서 자연적 의미의 天과 性은 방편적인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이러한 견해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勸學」 편에 잘 드러나 있다.

러하게 행위하는 것은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또한 남들과 함께 사는 것은 풍요롭고 편하며, 홀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고생스럽다는 것을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인정하는 어떤 관념이나 의식, 나아가 행위는 개인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적 이성’ 혹은 사회성·역사성·간주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순자가 강조한 인간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好利惡害)”는 공리성이나 경험적 지식, 더 나아가 사회적 약속에 의해 풍속이나 습관으로 된다(約定俗成)는 것에 의해 그 설득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²¹⁾ 이처럼 사회적 지위나 몫을 구분(分)하는 가능근거로서의 ‘義’는 정당화되고, 실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공평하거나 정당하다면 이상사회의 실현은 이를 수 없는 꿈만은 아닐 것이다.

4.

그러면 “덕행은 반드시 사회적 지위에 부합되고, 사회적 지위는 반드시 녹봉(급여)에 부합되며, 녹봉은 반드시 씹씹이에

20) 순자는 맹자의 동기주의와 달리 결과주의의 관점에서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즉, 사회질서에 부합되는 행위는 선이고, 부합되지 않는 행위는 악이라고 하였다. 「性惡」: 凡古今天下之所謂善者, 正理平治也, 所謂惡者, 偏險悖亂也. 是善惡之分也已.

21) 이러한 것들은 B.F.Skinner와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의 행동공학(behavior technology)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부합되고”²²⁾, “조정에는 요행스러운 자리가 없고, 민간에는 요행스럽게 사는 자가 없는”²³⁾ 이상적인 사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며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궁핍해지고, 무리짓되(사회생활) 구분이 없으면 다룬다. 궁핍함은 (인간의)근심이고 다름은 (인간의)재앙이다. 근심을 구제하고 재앙을 없애는 것은 구분됨을 밝혀 사회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²⁴⁾

널리 알고 있듯이 순자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천(天)과 인간본성을 이해하고 있다. 순자철학에 있어서 천은 ‘저절로 그러하게 (自然而然)’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自然)일 뿐이며, 인간의 일과 어떠한 가치적인 연관관계도 갖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가치의 담지자가 아니라, 단지 인간에게 이용되는 객관적인 대상에 불과하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으로서 모든 인간사를 자신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天人之分). 하지만, 인간은 욕구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존재이므로 어떠한 조절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욕구대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性惡說’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22) 「荀子」 「富國」: 德必稱位, 位必稱祿, 祿必稱用.

23) 「荀子」 「富國」: 朝無幸位, 民無幸生.

24) 「荀子」 「富國」: 離居不相待則窮, 羣而無分則爭. 窮者患也, 爭者禍也. 救患除禍, 則莫若明分使群矣.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그 선한 것이란 후천적인 인위 활동의 결과이다. 오늘날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타고난다. 이러한 성향대로 살아간다면 서로 다투고 빼앗는 행위가 생겨나고 반면에 남에게 사양하는 행위가 없어지게 된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남을 질시하고 미워하는 경향을 타고난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산다면 남을 해치는 행위가 생기고 반면에 충성스럽고 미더운 마음이 없어진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야한 소리나 색을 좋아하는 감각의 욕구를 가진다. 이러한 욕구를 따라 산다면 음란한 일들이 생기고 반면에 예의 문리와 같은 도덕규범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인간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다투고 빼앗는 행위로 나가고, 남의 몫을 침범하며 도덕질서를 어지럽혀 결국 혼란에 빠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교화되고, 예의에 말미암아 행위한 다음에야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덕원칙에 부합되어 나아가 사회질서를 이루게 된다. 이로부터 보건대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고, 그 선한 것이란 후천적인 인위활동의 결과이다.²⁵⁾

순자철학은 사회공동체의 구성과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을

25) 「荀子」 「性惡」: 人之性惡, 其善者僞也。今人之性, 生而有好利焉, 順是, 故爭奪生而辭讓亡焉, 生而有疾惡焉, 順是, 故殘賊而忠信亡焉, 生而有耳目之欲, 有好聲色焉,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然則從人之性, 順人之情, 必出於爭奪, 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故必將有師法之化·禮義之道, 然後出於辭讓, 合於文理而歸於治。用此觀之, 然則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실천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회적인 직분이나 몫의 한계를 구분하여 분명하게 밝히는 것(明分)이다. 다시말해, ‘明分’은 바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使群) 실제적인 실천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分’의 작용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禮’이다. ‘예’는 순자 철학에서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인의 수양이나 사회·정치·경제·언론의 질서를 꾀하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예’는 인간의 욕구지향적인 성향에 의한 이해관계를 규정짓는 ‘욕망조절의 원칙’으로 공정성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생활세계의 조화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는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대답하길, 인간은 태어나면서 욕구지향적인 욕망을 가지며, 무엇을 소유하려 욕구하되 얻지 못하면, 욕망추구를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다. 욕망추구를 하되, 어떠한 기준이나 한계가 없다면, 서로 다투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투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하면 생활이 궁핍해 진다. 선왕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하여 각자의 몫을 나눔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조절했고,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그리하여 욕망이 반드시 재물에 의해 궁핍해지지 않도록 만들었고, 재물이 반드시 욕망에 의해 다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욕망과 재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게 하는 것이 예가 생기게 된 까닭이다.²⁶⁾

순자는 '禮'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전의 종교적인 해석과 달리 인간의 욕망과 재화의 관계(경제문제)에서 발생되는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공리성)에 의해 생겼다고 설명한다. 즉, 분배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원칙으로서 '禮'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禮'는 첫째, 인간의 욕망과 재물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욕망의 조절원칙이고, 둘째, 사회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는 생활세계의 조화원칙이다. 순자는 이러한 '禮'의 구분하는 작용에 의해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욕망과 욕망, 욕망과 재물사이의 갈등구조를 조절하여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공동체 생활을 가능케 하는 '禮'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the given)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든 것(the making)인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그 선한 것이란 후천적인 인위활동의 결과이다”라고 말한 순자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은 본성을 교화하여 인위활동을 일으켰고, 인위활동이 일어나 예의를 만들었으며, 예의가 생겨나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듯, 예의법도란 성인이 만든 것이다.”²⁶⁾ 하지만 순자 스스로 여러 번 말했듯이, 성인의 본성 또한 일반사람들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성인으로부터 예의법도가 나올 수 있

26) 「荀子」 「禮論」: 禮起於何也? 曰,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以養人之欲, 給人之求, 使欲必不窮乎物, 物必不屈於欲, 兩者相持而長, 是禮之所起也.

27) 「荀子」 「性惡」: 聖人化性而起偽, 偽起而生禮義, 禮義生而制法度, 然則禮義法度者, 是聖人之所生也.

는가? 이에 대해 순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성인이 일반 사람들과 같고, 그 다르지 않은 까닭은 본성이다. 성인이 일반 사람과 다르고 더 뛰어난 까닭은 인위이다.”²⁸⁾ 다시말해, ‘禮’는 성인이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은유적 표현(metaphor)에 불과하다. ‘禮’는 한 명의 빼어난 천재인 ‘성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면면히 내려온 오랜 인류의 역사·문화적 발전을 통한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결집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예’는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긴 역사와 문화의 발전 속에서 살아온 인류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또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것을 순자는 “성인은 오랫동안 사려를 쌓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경험을 익혀 예의를 만들었다”²⁹⁾고 표현한다. 또한, 성인이 ‘예’를 만든 것은 바로 후천적인 인위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순자는 인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중시하여, ‘禮’를 인류의 경험과 지적 활동의 결정(結晶)인 역사전통의 권위에 근거 짓는다. 성인이 만들었다는 생(生)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식적인 의미만을 나타낸다. 이것은 빼어난 한 명의 성인이 노력하여 만들었다는 개체적 의미의 만듦(生)이 아니라, 인류의 집체적인 노력에 의해 만든 역사적·사회적 의미의 만듦임을 알 수 있다.

28) 『荀子』 「性惡」: 聖人之所以同於衆, 其不異於衆者, 性也; 所以異而過衆者, 僞也.

29) 『荀子』 「性惡」: 聖人, 積思慮, 習僞故, 以生禮義.

5.

사회공동체의 원리인 '예'를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천지란 만물을 창생하는 근본이요, 예의는 다스림의 근본이며, 군자는 예의의 근본이다. ...천지는 군자를 낳고, 군자는 천지를 다스린다. ...군자가 없다면 천지는 조리있는 질서가 없게 되며, 예의에는 일관된 체계가 없게 되고, 위로는 군주나 스승이 없게 되며, 아래로는 아비와 자식이 없게 된다. 대개 이것을 지극히 어지럽다고 한다.³⁰⁾

군주란, 사회적 지위나 몫을 구분하는 일을 주관하는 도지개이다.³¹⁾

'예'를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주체는 군주 혹은 군자(군자도 사실 군주를 가리키는 것이다)로서 실제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군주가 '예'에 의거해 "사회 혹은 정부의 통치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합당하다면 만물은 제각기 자신의 마땅함을 얻고, 각종의 가축은 모두 자신의 생장을 얻으

30) 「荀子」 「王制」: 天地者, 生之始也, 禮義者, 治之始也, 君子者, 禮義之始也……天地生君子, 君子理天地, ……無君子, 則天地不理, 禮義無統, 上無君師, 下無父子, 夫是之謂至亂.

31) 「荀子」 「富國」: 人君者, 所以官分之樞要也.

며, 모든 무리의 생명체는 각기 자신의 생명을 다 한다.”³²⁾ 그리고, 순자는 「君道」편에서 이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군주란 무엇인가”라고 물음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공동체적 삶을 잘 영위케 관리하는 자이다.(能群)” 그리고 이 ‘능군’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통(四統)을 제시한다.³³⁾ 이 ‘사통’이란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대체로 경제·인사·문화 등의 정책이다. 첫째, 사람들을 잘 살게 부양하는 방법(善生養人)은 상공인을 줄이고 농부를 많게 하며,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간사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다스리는 방법(善班治人)으로 천자는 삼공을 다스리고 제후는 재상을 다스리며 대부는 말은 관직에 전일하고 선비는 자신의 직분을 보존하게 하면, 어느 누구 하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없어

32) 「荀子」 「王制」: 群道當則萬物皆得其宜, 六畜皆得其長, 群生皆得其命.

33) 「荀子」 「君道」: 君者, 何也? 曰, 能羣也. 能羣也者, 何也? 曰, 善生養人者也, 善班治人者也, 善顯設人者也, 善藩飾人者也. 善生養人者人親之, 善班治人者人安之, 善顯設人者人樂之. 善藩飾人者人榮之. 四統者俱而天下歸之, 夫是之謂能羣. 不能生養人者, 人不親也, 不能班治人者, 人不安也, 不能顯設人者, 人不樂也, 不能藩飾人者, 人不榮也. 四統者亡而天下去之, 夫是之謂匹夫. 故曰, 道存則國存, 道亡則國亡. 省工賈, 衆農夫, 禁盜賊, 除姦邪, 是所以生養之也. 天子三公, 諸侯一相, 大夫擅官, 士保職, 莫不法度而公, 是所以班治之也.

論德而定次, 量能而授官, 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所宜, 上賢使之爲三公, 次賢使之爲諸侯, 下賢使之爲士大夫, 是所以顯設之也. 修冠弁衣裳黼黻文章琱琢刻鏤皆有等差, 是所以藩飾之也.

서 결국은 공평하게 된다. 셋째, 사람들을 잘 드러내 쓰는 방법(善顯設人)으로 덕을 헤아려서 상하 지위의 순서를 결정하고 능력을 따져서 관직을 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행하여 각기 자신의 마땅함을 얻게 하는 것이며, 또 가장 어진 자를 삼공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어진 자를 제후로 삼으며, 그 다음으로 어진 자를 대부로 삼는다. 넷째, 사람들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잘 구분지어 꾸미는 방법(善潘飾人)으로 의관과 복식의 무늬와 색깔, 그리고 모든 장신구와 기구에 등급과 차이가 나게 한다. 순자는 이와같은 '사통'이 모두 잘 시행되면, 온 천하사람들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기고 물려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능군'이라고 한다. 이렇듯 시스템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군주에 달려 있다. 하지만, 만약 군주의 능력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순자는 공동체를 관리하는 주체는 관리능력이 뛰어난 경영인인 동시에 도덕인격체인 聖王(철인왕)³⁴⁾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6.

순자는 '禮'이외에 사회질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음악(樂)과 법(法)을 제시한다. 음악은 유가의 전통에 있어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묵자는 강력하게 음악을 비판하였지만 유가의 전

34) 「荀子」 「解蔽」: 聖也者, 盡倫者也, 王也者, 盡制者也.

통을 계승한 순자는 여전히 음악을 중시한다. 순자가 음악을 중시한 까닭은 욕망을 긍정하는 관점의 연장이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즐거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즐거워하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감정이 표출되는 대로 그냥 방치하면 무질서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의 표출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한다.

대개 음악이란 즐기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 반드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즐기지 않을 수 없고, 즐거우면 반드시 목소리로 나타나고, 행동거지에 드러나니, 인간의 도리는 목소리와 행동거지가 성술의 변화를 다하는 것이다.³⁵⁾

이처럼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도해 사회공동체를 조화롭고 가지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대개 음악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깊으면, 그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빠르다. 그러므로 선왕은 삼가서 그것을 위해 꾸민다. 음악이 알맞고 부드러우면 백성이 화목하여 악한 곳에 흐르지 않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엄하면 백성이 가지런해져서 어지럽지 않고 백성이 화목하고 가지런해지면 군대가 강해지고 성곽이 튼튼해지니 적군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³⁶⁾

35) 「荀子」 「樂論」: 夫樂者, 樂也, 人情之所必不免也, 故人不能無樂. 樂則必發於聲音, 形於動靜, 而人之道, 聲音動靜性術之變盡是矣.

36) 「荀子」 「樂論」: 夫聲樂之入人也深, 其化人也速, 故先王謹爲之

‘예’는 가리고 달리하는 (禮別異) 작용으로 사회구성원의 계층을 구분지어 질서짓는 것이고, 음악은 합치고 같게 하는 것 (樂合同)으로 인간의 마음을 동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와 ‘악’은 사회공동체를 질서짓기 위해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선비 이상은 반드시 예악으로 조절하고, 일반백성은 반드시 법과 형벌로써 다스린다”³⁷⁾ 라고 말하듯 ‘예’와 ‘법’의 작용은 다르다. ‘예’의 작용은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각의식을 감화시켜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은 소극적으로 인간의 그릇된 행위를 방지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럼, 순자는 ‘예’와 ‘법’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순자가 “법은 홀로 설 수 없다”³⁸⁾고 했듯이 그의 전 사상체계 안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예’는 법의 기본원칙이며 기초이다. 따라서 법은 예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것이다. 즉 법의 근거는 예이다. 또한 법의 근원은 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자에게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법의 작용이 잘 발휘될 수 있는지의 관건은 군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순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이란 다스림의 단서(끝)이고, 군자란 법의 근원이다.

文. 樂中平則民和而不流, 樂肅莊則民齊而不亂. 民和齊則兵動城固, 敵國不敢嬰也.

37) 「荀子」 「富國」: 由士以上, 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 則必以法數制之.

38) 「君道」: 法不能獨立.

그러므로 군자가 있다면 법이 비록 영성하다고 할지라도 두루 다스리기에 충분하다. 군자가 없다면 법이 비록 빠짐없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법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앞뒤의 순서를 잃을 것이니, 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어지럽게 되기에 충분하다. 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법의 조항을 바로잡는 사람은 비록 널리 일에 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지럽게 될 것이다.³⁹⁾

이와같이 순자는 법에 독립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순자가 가끔 '예'와 '법'을 함께 말했다 할지라도 그의 전 사상체계에 비추어보면 법은 단지에 가운데의 한 가지(枝)에 불과하고, 중추적인 역할은 도덕인격을 갖춘 공동체의 관리인으로서의 군주에게 있는 것이다.

7.

지금까지 순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는다.

첫째, 모든 전권이 군주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격을 가진 자(內聖)가 군주(外王)가 되지 않는다면, 무원칙한 人治의 위험이 있다. 사실상 전통전제국가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노출을 우리는

39) 「君道」: 法者, 治之端也, 君子者, 法之原也. 故有君子, 則法雖省, 足以備矣, 無君子, 則法雖具, 失先後之施, 不能應事之變, 足以亂矣. 不知法之義而正法之數者, 雖博, 臨事必亂.

보아왔다.

둘째, 공리성에 근거한 '예'가 사회정의를 담보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셋째, 순자는 '禮'적 질서에서 '法'적 질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활동한 관계로 그가 주장하는 '예'에 의한 통치(禮治)가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제시한 '禮治'가 사실상 '法治'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